

합격기
[제54회 행시 일반행정직렬 합격]

꿈의 소중함을 알아가기



김 홍 오

- 1982년 12월 生
-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 서경대학교 수학과 졸업
- 제54회 행시 일반행정직렬(전국) 합격

I. 들어가며

합격한 후에도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원고마감을 앞둔 6월 현재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행시 2차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시기이고, 저는 어느덧 국토순례를 마치고 연수원 생활(제56기 신입관리자과정) 7, 8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나중에 합격하면 이리이러한 합격수기를 써야지' 라고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원고청탁을 받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넷북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한 후에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세 개의 목차로 나누어 제 주관적인 경험 보다는 다른 분들의 경험을 포함해서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글을 마무리 할 까 합니다.

저는 수험기간을 5년을 보낸 끝에 간신히 지난해 일반행정(전국)으로 최종합격했습니다. 첫해에만 행시를 교육직으로 보았고 나머지 시험은 모두 일반행정(전국)으로 보았습니다. 학업과 병행을 하느라 2010년 가을에서야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중간 중간 휴학을 많이 했습니다. 5년 동안 행시 2차를 다섯 번, 입시 2차를 두 번(06년, 10년) 보았고 면접은 09년 행시, 10년 행시 두 번 보았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노력으로 많이 극복하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II.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당부

1.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수험가에 많은 조언과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험생들이 서로 비슷한 조건하에 있고 소위 말하는 대세(?)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수험생 각자가 비슷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표준화된 공부내용일 뿐이고 이러한 내용을 알아가기까지 각자가 처한 환경과 개인의 스타일,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필요한 조언과 원칙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거나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평가받는 것은 표준화된 공부내용일 뿐이고 학원을 다녔는지 여부,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어떤 책과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디서 보았는지 등등은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부내용까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하나의 답이 명확히 있는 과목들은 답을 정확히 맞힌다는 기분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는 내용은 '과목별 접근 방법'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 칭찬스티커의 함정

특히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많은 합격수기에서 보이는 소위 '일요일은 쉬면서 준비했다'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쉬어도 되겠지' 라든가 혹은 '고시는 얇고 넓게 준비하는 것이니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지?' 라든가 'psat는

준비해도 늘지 않는다고 다들 이야기 하고 내 경험에도 그런 것 같으니 공부하나 마나겠지?' 라든가 '이 책을 많이 보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든가 '올해 시험을 이 정도 봤으니 올해는 합격하겠지?' 등등 스스로에게 잘못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은 원칙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 조절을 강조한 대목을 '쉬어도 된다'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시는 1년에 딱 한 번 시험을 봐서 공부 좀 한다는 분들 중 2% 남짓을 뽑는 매우 힘든 시험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한 케이스로는 09년에 전체 수석을 한 기획재정부 홍가영 사무관이 있습니다. 이 누나는 2차를 앞두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 솔직히 저도 주변 분들에게 '독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저보다도 열심히기도 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로는 아마 2008년 크리스마스도 기억하는데 그 날도 어김없이 공부를 하다가 저녁 썸에서야 배가 고파서 누나와 함께 햄버거를 사먹으며 휴일 분위기를 조금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수석을 할 당시에도 2차 직후에 누나는 떨어질까봐 많이 불안해하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수석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죽어라 열심히 하시고도 불안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즉 방심은 금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차근차근 끈기 있게, 요령 있게 알아 올라가야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쉽게 성과가 나오질 않아서 쉽게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스스로 만족감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거나 너무 원리원칙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의 경우 너무 교과서 연습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기출문제나 모의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소위 600제를 다 소화할 못해서 걱정을 하거나 해서 진도를 잘 못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먼저 하나의 주제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표적인 문제 (특히 표준적인 기출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답을 보아가며(때로는 억지로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해답을 보아가며 고민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해정도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주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를 다진 후에 다른 문제를 욕심을 내도 늦지 않습니다. 또 학원의 순환일정만 따라가느라 과목 간, 주제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고민 없이 단순히 강의를 많이 들어서 약한 기본기를 극복하려 한다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너무 공부의 외형이나 원리원칙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해 가면서 요령 있게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해의 폭을 확장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해가 되므로 때로는 미루는 주제도 있을 수 있고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4. 결국 어떤 내용을 가져갈 것인가

결국 시험을 앞두고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취사선택의 기준은 ‘평소에 어떤 내용을 주로 볼 것인가’와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볼 자료는 무엇인가’가 됩니다. ‘과목별 접근 방법’에서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제시해보고 이에 비추어 어떤 내용을 준비해나아가야 할지 과목별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에도 ‘이 내용을 시험장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 그래프, 법령, 이론, 사례 등등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지’ 시험장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흐릿했던 그림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며 약점을 채워나가는 순간순간들로 수험기간이 구성됩니다.

III. 과목별 접근 방법

1. 과목의 분류

2차 시험 다섯 과목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비교적 명확한 하나의 답이 있는 경제학, 행정법, 조사방법론(선택)과 비교적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복수의 답이 존재할 수 있는 행정학, 정치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학, 행정법, 조사방법론은 답을 맞힌다는 기분으로 표준화된 내용으로 공부해야하고, 나머지 과목은 비교적 유연하게 이론과 사례를 활용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과목들은 주제를 빠짐없이 양을 명확

히 해서 잘 챙겨야 하고(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정해진 답을 못 써서 크게 점수를 잃게 되므로) 뒤의 과목들은 급할 경우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시간을 아끼고 주제간 연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간 연계성을 놓고 분류하면 경제학, 조사방법론이 주제간 연계가 약해 각 주제별 별도로 학습이 용이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주제간 연계를 잘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제학

(1) 최종 자료

시험 당일: 미거시의 집(Zip) 또는 단권화된 교과서(강사님 필기 보충 등)를 보며 기본 이론 확인, 시험 전날: 주요 모의고사 문제들 검토하며 감 살리기

(2) 평소에 공부할 내용들 및 방향

최소한 미거시 집(Zip)에 나와 있는 이론은 정확히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추가한다면 김인준 저 국제경제학 교과서의 단문 주제를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장에 미거시 집과 국경요약 노트만 가져갔습니다. 교과서도 많이 봤지만 참고하는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미거시 집의 내용이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확인하며 공부하면 됩니다. 주제별 연계가 약하므로 진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주제별로 찾아가서 약점을 수시로 보완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이 답안을 풀버전으로 쓰지 않고 연습장에 끄적여가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논리적으로 배점에 맞게 설명하다보면 답안지는 자

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다른 강사님들 문제도 좋지만 김진옥 강사님 5~7년 치 정도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에 기타 문제, 내용프린트들 추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양이 늘어나지 않게 주의해서 주요 문제를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를 중심으로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난이도 문제를 조금은 욕심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행정법

(1) 최종자료

시험당일: 단권화 된 교과서 또는 이론 요약자료로 기본 이론 확인, 시험 전날: 각종 판례 사례 자료들 검토하며 감 살리기

(2) 평소에 공부할 내용들 및 방향

우선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학설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명 교수님 한 분 또는 강사님 한 분 이면 됩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취한 학설에 맞게 이론, 법령을 해석합니다. 판례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되 판례는 그 자체로 풍부하게 욕심을 내서 챙겨야 합니다. 결국 교과서 한편에 각종 판례 사례의 보충이 볼 자료의 전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병철 교과서를 정하중 교수님 강의내용으로 학설을 정리 한 후 성봉근 강사님 등 여러 자료를 가감해서 보았습니다. 주장 - 근거의 연결을 통해 이론, 법령, 판례 등을 논리적으로 연결지어 생각하고 답해야 합니다.

4. 조사방법론(선택)

(1) 다른 과목과의 비교

정책학이나 정보체계론과 달리 행정학 보다는 행정법에 가까운, 논리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이 얼마나 행정학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조사방법론이 점수를 잘 주는 편이므로(저는 09행시 34.33, 10행시 33을 받았고 다른 분들도 30점대를 받기가 어렵지 않았습디다) 유리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최종자료

나름대로의 서브 또는 수험서 정리한 것 정도면 됩니다. 평소에 암기를 잘 해 두었다가, 시험 전날과 당일 아침에 천천히 복습하면 충분합니다.

(3) 평소에 공부할 내용들 및 방향

최근 기출문제가 좋은 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해설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약간 더 욕심을 낸다면 모의고사를 조금만 추가하면 됩니다. 교과서나 수험서 내용을 더 늘리지 말고 체계적으로 분류를 잘 해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간은 암기가 부담 될 수 있으므로 두문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신으로 새롭게 반영되는 것도 거의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5. 행정학

(1) 최종자료

시험 당일: 간략한 서브나 수험서로 이론 확인, 시험 전날: 모의고사 자료를 확인

(2) 평소에 공부할 내용들 및 방향

유연하게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기초도 있어야겠지만 너무 어렵게 준비하려 하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평소에 미리미리 정리해놓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논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 논문은 참고만 하고, 양을 늘리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정경호 '실전중심행정학'을 도구로 서브 비슷하게 만들고 각종 모의고사 등 자료를 마음 편하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천오, 유민봉 교수님 교과서와 박경효, 박훈 강사님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요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간에 강의 내용이 비교적 비슷비슷해서 갈아타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6. 정치학

(1) 최종자료

시험당일: 간략한 서브(강제명 강사님을 따라가는 경우 기본서에 단권화도 가능)로 약간의 이론과 흐름 확인, 시험전날: 신문 기사, 모의고사 등 자료 검토

(2) 평소에 공부할 내용들 및 방향

물론 저처럼 공부기간이 늘어나면서 양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양을 선택과목 못지않게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른 편이므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강사님 선택을 하고 다른 강사님 자료를 조금만 보충하면 됩니다. 다만 행정학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답안 작성 연습을 일정 양 이상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론은 민주주의, 정치과정, 국제정치 등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챙기고,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해석하고 평소에 현실 정치를 고민해온 것을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너무 주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균형감과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논문, 단행본 등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모의고사 자료로 커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특히 시간이 없다면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과 ‘국제정세의 이해’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원준 강사님의 틀 잡아주는 강의 내용과 신희섭 강사님의 수험정치학 등 모의고사 자료가 좋았습니다.

7. 영어, 한국사, psat에 대하여

우선 영어와 한국사 때문에 애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점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기준 점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어나 한국사 점수도 없는데 무작정 2차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사치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psat의 경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것인데 저는 분명히 틀린 그리고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도 잘 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선 지나 제 주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는 경우 또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 방식과 사고방식, 집중력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조건 문제풀이에만 몰두하거나 모의문제의 점수나 지엽적인 내용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를 적게 풀더라도 문제 푸는 방식을 하나라도 더 익히거나 문제 푸는 속도를 높이거나 등등 무언가 공부하면서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PSAT를 비교적 잘 보는 분들이 무작정 문제만 풀지는 않고 무언가 논리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둘째, 사고방식과 집중력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집중해서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거나, 문제 푸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1차 시험을 볼 때에는 2차보다도 더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혼신의 힘으로 집중해서 속도감을 가지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입시 1차를 붙을 때에는 조금은 과장이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매순간 집중하려고 애썼고, 대신 힘들어서 공부량이 많은 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PSAT 또한 시험이며 안정적으로 붙는 분들이 무조건 편하게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기출 문제와 질 좋은 모의고사 그리고 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논리의 힘입니다.

IV. 그 밖의 조언들

1.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용기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최소한의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음이 여린 여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고시생은 약자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주변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 끄꿍 앉지 마시고 모쪼록 주변의 가족이나 애인, 또는 친구 종교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의지도 하고 응원도 받으며 용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시험을 정

말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용기를 가지고 무조건 버터내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2.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고 겸손해야

저에게 가장 큰 위기는 09년 행시 면접에서 불합격한 직후였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떨어진 것 자체로도 마음의 부담이 있었지만, 그 보다는 휴학을 더 이상 하기 힘든 여건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겨울방학 때 계절 학기를 수강하고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며 힘든 만큼 더 열심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고, 또 너무 자신감은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덕분에 입시 2차를 잘 못보고 시간도 정말 부족했지만, 그나마 행시 2차를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0년 상반기는 정말 아찔하다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보낸 거 같습니다.

3. 글씨문제

물론 글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정말 글씨를 못 쓰는 편이고 합격생 중에는 저보다도 더한, 정말 심한 약필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씨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채점하시는 교수님께서 하나 하나 다 읽어 주시므로 믿음을 가지고 공부내용에만 집중하면 될 거 같습니다.

4. 끊임없이 개선하기

결국 공부 방법, 내용 등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4, 5년차에도 저 스스

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싶으면 과감히 바꾸는 것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공부경력이 훨씬 짧은 분들에게도 많이 묻고 고민하려 애썼습니다.

V. 나오며

지금까지 두서없이 생각나는 내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수험기간 동안 그리던 합격수기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내용의 결론은 수험기간 동안 꿈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장차 써내려갈 합격수기를 만들어가는, 이뤄낼 꿈의 일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순간마다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시간을 보낸다면 나중에 이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할까 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살아 숨을 쉬고 공부도 하고 밥벌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여러 교수님, 강사님, 합격생, 동료 수험생들의 격려와 조언, 질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패를 끼친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특히 지난해 좋은 조언, 격려를 해준 가영누나와 박훈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을 준연 형과 하라, 병철 형과 태진 형이 행시 2차에서 대박을 낼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특히 저처럼 오래 공부하신 분들 파이팅입니다.